3. 어른과 아이의 역할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恭遜(공손)*하다 말한다.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는 어른을 恭敬한 뒤에야 나이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른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폐단이 없어 사람의 도리가 바르게 된다. (『동몽선습』「장유유서」)

나이 어린 사람이 先生(선생)과 어른을 모실 적에는 道理(도리)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質問(질문)하여 배우는 것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德이 많은 사람을 모실 때에는 조심하여 恭遜(공손)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만약 묻는 것이 있으면 恭遜(공손)하게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어른은 어린 아이와 함께 있을 때에 孝道하고 兄弟끼리 잘 지내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信義를 지키도록 친절하게 말해주어,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어른은 항상 溫順(온순)*하고 恭遜(공손)하고 慈愛(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니, 남을 해치는 마음은 털끝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접인장」)

*恭遜(공손) : 공경하고 겸손함
*溫順(온순) : 마음이 따뜻하고 순함
*慈愛(자애) :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어른과 아이의 역할

어른의 역할

친절하게 가르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어린이를 사랑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행동을 공손하게 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은혜를 베푼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어른과 아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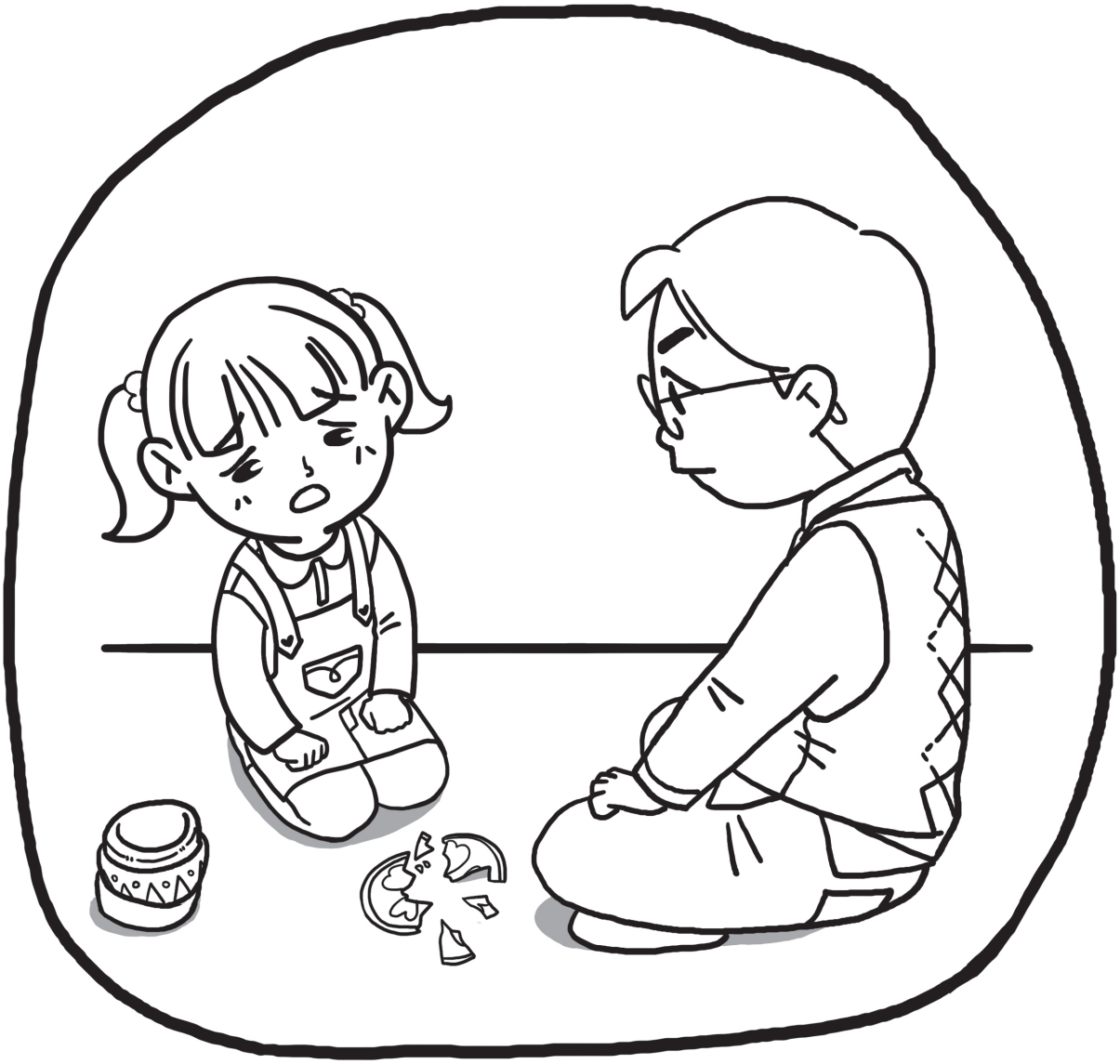
아이의 역할

공손하게 행동을 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묻고 배운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공부에 힘쓴다

본문 해설

본문을 읽어보면 長幼有序(장유유서)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이들이 어른을 恭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어른과 아이가 서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이루어지는 도리에요. 그런데 長幼有序(장유유서)를 잘못 이해하면 힘이 센 어른이 아이들보다 먼저 해도 된다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뿐이에요. 예전에 실제로 이렇게 한 어른들도 있었어요. 長幼有序(장유유서)의 도리를 잘못 이해한 거지요.

사실 어른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이가 무엇을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 주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은혜를 베풀고 너그럽게 해야 돼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이들은 무엇보다 어른에게 공손해야 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거나 무엇을 물어보면 짜증을 내면서 대답하거나, 어른 앞에서 함부로 떠들거나 까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딴 짓을 해도 안 되지요. 어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동몽선습』에서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간다'는 것은 어른의 앞길을 가로막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서, 공손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어른이라면 공손하게 바삐 지나가면 그뿐이고, 잘 아는 어른과 같이 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가면 어른들이 착하다고 하면서 허락해 줍니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른을 만나는 경우는 가까운 친척 이외는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른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어른께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 어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의 인격을 위한 것이거든요. 꼭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내 주변에는 가족과 친척 외에 어떤 어른이 있는지 써 보시오.

2. 앞에 나온 1번의 어른들로부터 어떤 사랑이나 도움을 받았는지 있으면 써 보시오.

3.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방법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 보시오. ( )

① 길에서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② 어른이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
③ 어른이 무엇을 물어보면 아는 대로 솔직히 대답한다.
④ 어른이 나를 못 보았으면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지나간다.
⑤ 맛있는 것 사달라고 조른다.

4. 다음에서 친구의 부모 가운데 어떤 분이 좋은지 솔직하게 골라 보시오. 두 가지만 골라 보세요.
( )

① 내게 항상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해 준다.
② 내 성적을 물으며 은근히 친구와 비교를 한다.
③ 길에서 만났을 때 친구에게만 맛있는 것을 사준다.
④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 꼭 알린다.
⑤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 준다.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사랑할	먼저	바탕	물을	이로울
한자	慈	先	質	問	利
음	자	선	질	문	이(리)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慈悲(□비) :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先後(□후) : 먼저와 나중

品質(품□) : 물건의 성질과 바탕

問答(□답) : 묻고 답함

利用(□용) : 이롭게 또는 편리하게 씀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우리 父母님은 매우 慈愛(　　)로우신 분들이다.

나. 율곡 先生(　　)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셨다.

다. 質問(　　)을 많이 하는 학생이 대체로 성적이 좋다.

라. 복습보다 예습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有利(　　)하다.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事師如親(□사여□)하여 必恭必敬(필□필□)하라 :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하여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하라.

나. 先生施敎(□□시□)면 弟子是則(□□시칙)하라 : 선생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거든 제자들은 이것을 본받으라.

다. 年長以倍(연□이배)면 父以事之(□이□지)하라 : 나이가 많기를 곱절이 되면 아버지처럼 섬겨라.

똥 먹은 훈장님

옛날 어떤 서당의 젊은 學生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당훈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던지, 장가가는 學生을 보고

"장가를 가서 첫 아들을 낳으려거든 콩을 두 되 볶아서, 콩 한 줌 먹고 물 마시고 또 한 줌 먹고 물마시며, 화장실도 가지 말고 첫날밤을 잘 참아야 한다." 라고 일러 주었지. 순진한 젊은이는 훈장이 일러준 대로 하였는데, 과연 뱃속이 부글거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 그래도 첫아들을 낳는다기에 꾹 참고 장가를 갔지. 혼례식을 치른 뒤 똥이 못 나오려고 하려고 꿇어 앉아 발뒤꿈치로 항문을 꽉 막고 앉아 있었지.

드디어 첫날밤 신부가 방에 들어오고 잠을 자야하는데, 신부가 가만히 보니 신랑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엉거주춤하고 앉아 있지 않겠어? 잘 時間이 넘었는데도 신랑은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데, 답답해진 신부가

"여보시오. 자지 않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손을 홱 잡아당기자 신랑의 발꿈치가 막았던 항문에서 떨어지니, '뿌지직' 하며 설사 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겠어요? 신부가 이것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신랑은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서당의 훈장이 아주 고약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 그 설사 똥을 보기 좋은 술병에다 넣고, 신랑에게 주면서 그것이 처갓집에서 가져온 좋은 약주라고 하면서 나중에 훈장에게 갔다드리라고 했지요.

며칠 후 신랑이 서당훈장에게 그 병을 갖다드리면서 貴한 약주이니 아무나 마지지 못하게 캄캄한 밤에 혼자 드시라고 일러 주었어요. 그리고 서당훈장은 캄캄한 밤에 남몰래 그 병속에 든 설사 똥을 마시고 말았어요.

어른과 나이 어린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서로가 사랑하고 恭敬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